

다시 일어나자! 대학이여

권 오 길

강원대 생명과학부 교수



무인(戊寅) 새해가 오면 세상의 잡귀들이 호랑이에게 쫓겨 달아날 줄만 알았더니 되레 더 무서운 IMF라는 범이들이닥쳐 온통 들쭉거리고 다니는 통에 온 나라가 전전긍긍, 벌벌 떨고 있다. 학교 복도도 전등을 모두 꺼버려 캄캄한 동굴 속을 기듯이 다니고, 내 방의 전등도 두 개나 줄여버렸다. 옛날에는 복도의 등만 해도 빈쪽만 켜두면 어느새 어느 녀석(학생)이 마저 스위치를 올려버려, 끄고 켜기를 숨바꼭질하듯이 했었는데 요새는 단박에 달라져서 그 컴컴함을 참고 지내는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국립대학생 너희들은 1년에 몇 백만 원이나 나라(국민)의 혜택을 받

는다.”고 타이르고 꾸중도 하면서 “학교를 내 집으로 생각하고 물과 전기, 또 학교 기물을 아껴야 한다.”고 귀가 닳도록 가르쳤으나 막무가내였던 그들이 술선수범하는 것을 보고 역시 이들도 부모들의 ‘끓음의 인자’와 ‘아낌의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큰 강의실에 혼자 있으면서 36개의 형광등을 담 크게 다 켜 놓고 전기라는 재물을 노략질하던 그들이 어찌 저렇게 표변하나 싶어 가상하기 짝이 없다.

어디 전기뿐이겠는가. 휴지 하나만 해도 나의 또다른 잔소리(?)의 과녁이 되곤 하지 않았던가. 두 겹짜리 화장지 한

도막을 잘라 들고 강의실에 들어가 “이 사람들, 이것 보게나. 세로 11cm, 가로 10cm인 이것을 반으로 또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세로 5.5cm, 가로 5cm에다 여덟 겹의 도톰한 밀싹개가 되지 않는가, 이만하면 충분할텐데 어찌하여 자네들은 팔을 다쳤나, 붕대만큼이나 들들감아 들어가느냔 말이다……” 아마도 그 교수 꽤나 쩌쩌하다고 속으로 비아냥 거렸던 사람들도 이제 정신 좀 차렸을 것이다. 우리가 시골에서 클 때만도 마른 짚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밀을 닦았고 밭가에서는 콩 이파리요, 물가에 가면 돌맹이로 닦았으며……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 이야기도 양념으로 덧붙여 주기 일쑤나 그렇게 반응이 신통치 못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집집마다 쪼들리다보니 내 생각이 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가난을 전해주지 않겠다고 이를 악다물고 살아온 우리에게 이번 나라 빛잔치가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하나 전화위복이요, 새옹지마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 위안을 해 본다. 거품, 거품 하는데 무엇보다 마음(머리) 속에 들어차 있는 거품부터 뽑아버려야 한다. 사실 거품은 14번째로 되어 있어 가장 안정된 것이라고 하는데, 비누거품은 그렇다치고 허파에 생긴 것은 몹쓸 것이라 뽑아버려야

한다. 너, 나, 학생, 교수 할 것 없이 그놈의 거품이 팍 차 있어서 몸이 붕붕 떠서 공중에 살아왔으나 이제야 제 자리인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이니 전화위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좀 더 갔다가는 공중에서 폭발하여 뺨가부도 찾지 못할 뻔했으니 이것이 어찌 새옹지마가 아닐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놈의 도깨비 같은 달러 (\$)가 이렇게 사람을 잡는지 모르겠다. 집도 학교 건물도 또 나라 땅도 다 그대로 제 자리에 있건만, 하루 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되느냐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쇠국정책으로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었는데도 그 유전체질을 바꾸지 못해서 미국이 그렇게 “문을 열어라.”고 했으나 달고만 있다가 “Pax Americana”에 혼쫓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코리아 놈들 맛 좀 봐라, 길거리를 들여놔야지.”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줄도 모르다가 이제야 그들의 어금니와 발톱질에 기가 질려 “예, 예, 하라는 대로……”하고 절절매고 있는 꼴에 슬프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어쩔 수가 없다. 쪽박 든 신세라 더럽지만 찬 밥, 더운 밥을 가릴 겨를이 없게 되었는데 이 꼴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 우리 교수들의 책임으로,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로봇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지 못했나

하는 심한 자책과 자괴에 빠지게 된다. 알량한 그 놈의 지식이 밥 먹여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게 정말 후회스럽다는 것이다.

먼 훗날 '대학담론'을 읽어 볼 후학들을 위해서라도(아, 그때 그랬구나 하고) 가까운 이야기인 IMF 사태에 따라 대학 내에 일어난 소용돌이의 단면을 남겨 두고자 하며, 그 불똥이 기업체, 사업가에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해 놓겠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에만 해도 오랫동안(처음으로) 외국에 나가 견문을 넓혀 보겠다고 베풀던 여러 교수들이 유학을 포기해버렸다. 계딱지만한 집은 이미 전세를 쫓아버렸고 딱정벌레만한 차도 다 처분해 버렸다는데 달러 가치가 두 배나 올라버려 학교나 재단에서 주는 코딱지만한 도움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은 그래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강행을 해 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 나라에서도 집과 자동차가 해결될 때까지는 더 부살이에 걸어야 할 판이 되었다. 나라가 잘 살아야 유학을 가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배워와서 나라를 살찌게 하는 것인데 이러다간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가 될 판이다. 하기가 이 난리통에 무슨 외유며, 갖은 소리 다 한다고 한다

면 일리가 있고 할 말이 없다.

그건 그렇다 치고, 대학의 연구실에도 비상이 걸렸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연구비를 받아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도 다 그렇지만 실험에 쓰이는 시약들은 거의가 다 수입해다 쓰는데 달러가 그렇게 치솟다 보니 연구비가 시약 사는 데도 모자라는 지경이 되어 교수들이 아우성이다. 연구비가 많았던 사람들은 환율이 하늘 끝까지 오르기 전에 사재기(?)를 해서 그래도 한숨 돌린 교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서 1:2, 200(이 원고를 쓸 때 환율은 1,605원임)으로라도 겨우 사서 때우고 있다. 필자 같이 분류학을 하는 사람들은 온 천지를 돌아다니느라 차비, 숙박비가 더 드는 정도의 문제는 생이나, 고급 시약을 써야 하는 실험실은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더한 일은 실험기구도 역대가 넘는 것이 썩고 썩으니 제대로 공급될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게다가 대기업에서 대던 연구비도 못 주겠다고 통보가 내려 온단다. '내 코가 석자'나 됐으니 그럴 것이라 여기면서도 이러다 보면 나라의 기틀이라는 '과학'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 섬뜩하기만 하다. 이제 겨우 일어나 선진국을 좇아 내달려 가던 과학의 발걸음을 멈춘다는 것은 결국 나라모두를 포기하고 내놓는 꼴이 되니 두렵다는 것이다. 국력은 누가 뭐래도 과학

과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가 하면 월급이 동결되느니 10%가 삭감되느니 하는데 그것보다 더한 일이 사립쪽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할 말을 잇는다. 어느 대학에서는 월급을 몇 달치를 못 받았다고 하니 말이다. 어쩌면 중단 말인가. 아무리 교수들이 청빈낙도(淸貧樂道)에 익숙해 왔다 쳐도 호구지책에 문제가 생겼다니, 해도 너무나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어도 이제 더 뭘 것이 없이 살아왔는데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인가. 정말로 남 보기 창피한 일이다.

땅을 팔고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들 교육을 시켜왔기에 그래도 나라가 이만큼 컸었는데 또 다시 집을 팔아야 가르칠 수가 있게 되었다니 이보다 더한 나라 재앙이 있단 말인가. 필자도 삼십 몇 년을 선생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월급 깎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 봤다. 그런데 어쩌하여 '내 탓이오!'하는 사람 하나 없는 것일까. 앞에서 말했듯이 교육 잘 못시킨 내 책임도 면할 수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쩐지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이 통하는 것을 보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나라를 이렇게 거덜나게 한 근시안적인 사람들 말이다.

그래, 누굴 탓하여 무엇 하겠는가. 내 탓인걸, 그것도 모르고.

어쨌거나 전화위복이라, 라면이 외산인 것을, 달걀·우유도 달려 주고 산 수입 사료의 산물이라는 것도 몰랐던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줬다니 되레 잘 됐다고 위안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지가 왜 얻어 먹으러 다니는가도 느껴 봤으니 얼마나 고귀한 체험인가. 돈 한 푼 없는 작자들이 남의 돈으로 흥청망청 거드름을 피웠으나, 어디 누구 하나 그게 남의 돈이라고 일러 준 어른 한 사람이 있었던가. 오, 통재라! 소원이 있다면 자식들 배 굶기지 않겠다는 것이 최고의 염원이었는데 또 아이들에게 김치와 시래기국을 먹이게 되어 정말로 가슴 아프다. 못난 아버를 만나 또 제 아버지처럼 배를 굶다니.

누가 뭐래도 나라를 이 꼬락서니로 만든 사람은 꽤나 배웠다는 골통에 먹물 든 사람들과 머리 굴려 제법 모았다는 배에 똥찬 사람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 술수에 능한 정객들이다. 모두 책임을 느끼고 회개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크게 반성하여 나라를 다시 일으키도록 분골 쇠신해야 할 것이다. 허탈하기 짝이 없고 분하기 한이 없다. 그러나 어쩌겠나, 이렇게 된 걸. 탓한다고 될 일이라면 탓이나 실컷

하련만…….

나라의 초석이요 기둥은 역시 교육이요, 그 중에서도 대학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하겠다. 흔들리지 말자. 한 사람의 진동이 우주에까지 미친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미동도 하지 말고 곳곳이 바로 서서 복도의 불도 다시 켜고, 내 방의 전구도 새로 끼우고, 저 방의 실험실 기계 소리가 우렁чал 때까지,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고 시작을 우리가 했으니 끝장도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는가. 참

고 견디어 다시 일어나자. 대한민국 대학교육 만세! ■

권오길/서울대 사대 생물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중앙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수도여중·고, 경기고, 서울사대부고에서 교사를 지내고, 현재 강원대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한국 동·식물도감(연체동물편)』, 『꿈꾸는 달팽이』, 『인체기행』, 『생물의 죽살이』, 『생물의 다살이』, 『개눈과 틀니』 등이 있고 “한국산 달팽이의 분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